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Himalaya Coffee House

통권11호, 발행 번호2

회보 발행 일자 2020. 12. 21

올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가족을 위해 함께 동행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눈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 오신 성탄과 송구영신의 계절을 맞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일상을 사시느라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응원하며 멀리서나마 기도로 함께 아뢰며, 다가오는 2021년도 우리의 소망되시고 각 사람을 주님 닮아가는 일상으로 날마다 초청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인도에서 서바나바 김기쁨 올림



이세의 축기에서 한 쪽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쟁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울으로 악인을 죄일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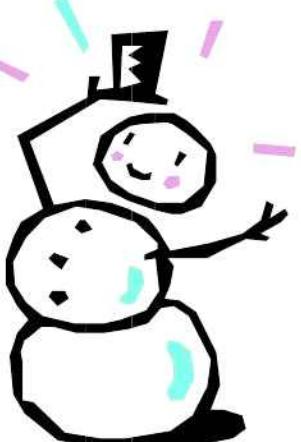
공의로 그의 머리피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피를 삼으리라

사 11:1-5



위—직원들과 성탄을 기념해서

좌—점점 커가는 아이들과 같이 가족사진





현장일꾼의 기쁨이란?

아마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쁨은 같이 일하는 아니면 본인 가르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도에서 와서 10년을 보내며 매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리고 사람 참 안 변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착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는 일의 성격상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단기로 복음을 전하고 빠지는 것이 아닌지라 앞으로를 생각해서 천천히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여기서 일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일 전 반가

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같이 5년 정도를 일 한 우메쉬라는 친구와 같이 차를 타고 산마을 출장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성경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중이었는데 크리스천인 이 친구가 저에게 선생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좋고 자기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안단테 카페에서 다른 직원들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어떨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야 믿은지 얼마 안되긴 하지만 기독교 인이라 그런지 다른 친구들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우메쉬의 이야기는 모두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 기간에 카페가 문을 닫았을 때도 빼놓지 않고 월급을

지급한 일이며, 매일 말씀을 나누는 것에 직원들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내와 나누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당장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아니기에 힘든 점도 있었고, 저희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인지라 카페를 운영하면서는 직원들에게 짙은 소리도 하게 되고 얼굴을 붉힐 일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자라는 혜린 유진~

요즘 인도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코로나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등교하고 있지 않다는 뿐인 것 같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도 70% 정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를 알고 지나간 많은 정황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 긴급히 함께 아릴 제목을 보내드린 것처럼 저희 가족들도 코로나를 한번 경험하고 지나간 흔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김선생이 많이 아파서 격리하며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있었는데도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이 유진이는 2~3일 정도 아프다 지나가고 혜린이는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간 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 엄려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오래도록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학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집에서는 거의 한국어만 사용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 드리는 것은 생각 나실 때마다 저희 아이들과 다른 MK들을 위해서도 잠시나마 아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들로 아버지의 자녀로 잘 성숙하고 자라나며,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학업에 뒤쳐지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